

# 육계계사 단열까지 고려 해야 생산성 극대화 된다.

정리/이인수기자



성장규사장과 부인이성옥여사

**육**계업은 투기업이 아닌 천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산농장 성장규(38세)사장은 경기도 여주군 매류리

에서 13년동안 육계업에만 전념하여 3만여수 규모의 육계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육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9년 학교를 졸업하고 목장을 하는 것이 꿈이었으나 젓소 구입비, 초지구입 및 조성비, 경영자금, 시설자금 등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있어야 함을 느끼고 것처럼 목장에 매력을 느꼈지만 소자본으로 자기 노동력을 활용 착실하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육계업에 관심이 쏠렸다.

부인(이성옥, 34세)과 결혼을 한 동기도 다른 여성과는 다르게 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만날 때마다 대화의 초점이 축산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만남지 2년째가 되던 해에 결혼이라는 말이 오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혼한 둘은 서둘러 비닐하우스 간 이 계사를 지어 병아리를 구입

육계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육계에 대한 장·단점을 성 사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단시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이 빠르고, 소자본으로도 경영이 가능한가 하면 위험 부담도 적을 뿐 아니라 착실히 경영하면 수익이 보장되고 사육규모를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반면, 단점으로는 수급의 진폭이 매우 커 출하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육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투기업화 되기 쉽고, 가격여하에 따라 출하조절이 어렵기도 하고 수송에 어려움이 수반되며, 연속 입추가 되면 정신적 피로와 권태감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연구하는 육계인 이기도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육추계획이 중요함을 강조하는데 일련농사는 법씨선택이 중요하듯이 육계도 우량한 품종의 병아리를 입추해 사료요구율도 낮추고 폐사도 적어 이윤이 극대화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늘 입추시에는 믿을 만한 부화장에서 생산된 건강한 병아리 주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

### ○육계사육은 세심한 관심이 중요...

육계사육이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행하여지다 보니 계사도



적정온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병아리들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자동화를 할 수도 없는 형태가 많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성산농장은 철저한 올인-올아웃(all in-all out)을 지키고 있어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연간 4회전 입추도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무리한 입추를 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만회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처음 육계를 시작할 때 3천수 규모였는데 그당시 공무원 봉급이 월15만원이었는데 3천수 출하하여 50여만원 소득을 올릴 때가 많아 운이 좋아서인지 착실히 저축을 하면서 부인과 더불어 육계인으로 대성하자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였다.

### ○어려운 시기를 재기의 발판으로...

성산농장은 3년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사육수수에서도 1만5천수, 3만수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제반여건 즉, 계사시설 보완문제, 계사를 신축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위시한 여러가지 기타 문제들이 따라주지 않아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육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문제 등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받아 늘 쫓기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계업자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많았으나 마을과 인접해 있는 농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다가 현재의 농장인 여주군 매류리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산한 육계를 출하 할 때면 판로에 있어서도 유통체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출하가격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육계값은 곧 두박질 컷다.(선거나 올림픽 등) 그럴때마다 육계업을 포기 할 생각이 늘 머리속에 맴돌았지만 축산업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기에 자라는 닭을 바라볼때마다 팔자려니 생각이 되었고 또한 아내가 옆에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줘서 굴하지 않고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정보, 즉 통계자료를 적절히 이용할 줄도 몰랐고, 현재처럼 생산자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모여 정보교환과 생산동향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 혼자의 경험으로 육계생산에만 온 힘을 기울였다.

초창기 육계품종으로는 하이브로, 아나크, 603 등이 고작이었으며 오늘날과 같이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육계 품종은 없었다. 육계업을 하던 중 가장 어려운 시기로는 계사가 비닐하우스식 이다 보니 자연재해(즉 바람, 태풍, 비)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혀 없었다. 한때는 바람에 의해 계사 전체가 날아가 아내와 함께 밤새 필러이는 계사를 덮어야 했

을 때 참으로 암담했다.

이렇게 하여 키운 닭을 출하하여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하늘을 날을만큼 기쁨을 느낀 적도 있다. 다행히 육계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번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육계업 뿐만 아니라 양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질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질병 예방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릴때 예는 면역성이 적어 질병에 대한 감염율이 높으며 발병으로 인해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역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질병으로부터 대량 폐사율을 막아 생존율 99%까지 출하하기도 하였는데 초창기에는 60일정도 사육하여 1.8kg 정도의 출하가 주종을 이루었다.

10여년전에 함께 양계업을 시작한 사람은 지금은 거의 전업내지 폐업을 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가 없었고 생산비도 증가하여 이윤의 폭도 차츰 감소한데서 기인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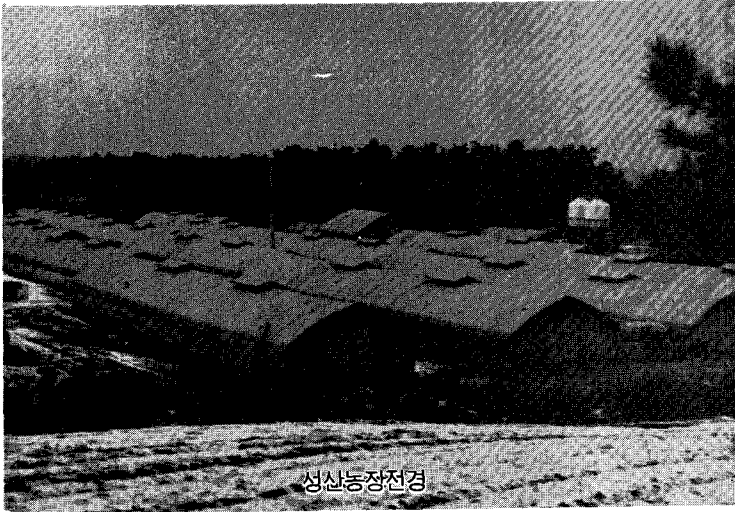
### ○ 유통질서 보완이 시급

현재 생산농장은 3~4 회전을

하고 있으며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3만여 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계사내부는 급이·급수를 비롯한 온도조절까지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아무리 질 좋은 육계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걱정하지 못하면 육계값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야 하는 육계업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생산자들도 노력해야 하며, 또 보다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탈락한다는 생각으로 육계업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다. 성사장이 바라는 희망은 정부 및 각 축산관련 단체들은 육계사육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통질서를 보다 보완하고 생산자들도 생산조절에 다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다.

경기도 여주군 매류리에 위치한 성산농장은 총 규모 8천평으로 계사건평 750평에 육계사육수는 3만수에 이르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육을 하기 위해서 계사와 계사 사이의 공간(2m)을 많이 두었으며 평당 35~40수를 사육하고 있다. 계사 1개동은 40~60평 정도이고 계사는 자동화 시설(급이·급수) 및 보온시설이 되어있고 연 4~4.5회전을 하고 있으며, 올인-올아웃(all in-all out) 방식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출하후 일정한 휴식기간 동안 계사내 소독을 철저



성산농장전경

히 하고 병아리값에 따라 다르지만 생산비는 수당 평균 850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철저한 질병예방으로 97~98% 현재 출하를 하고 있으며 정전을 대비하여 소규모 발전기 시설(경운기로 활용)도 갖추어 놓았다. 앞으로 맞이 할 '92년도 육계경기는 결코 낙관 할 수 만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현실상 제도적인 문제를 위시한 인력난, 오수 및 축산폐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족노동력 중심, 시설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있

음을 누누이 강조하는 성사장은 육계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

현재 정부 및 축산관련 단체들이 계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생산자들도 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여 생산비의 절감, 부가가치의 제고, 상품 소비촉진의 향상성, 생산물의 수급조정의 용이성 및 상호협력과 생산성의 향상에 다 함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족노동력을 이용하

여 4만수 규모의 육계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수입개방에 대처 해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 및 각 축산관련 단체들은 닭고기 소비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값싼 닭고기를 소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특히, 육계의 소비는 통닭의 형태에서 점차 부분육의 형태로 바뀌고 있어 같은 체중의 육계라도 다리살이나 가슴육의 생산량이 많은 닭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닭고기의 경우에는 '93년에 미절단 신선육, '94년 절단 신선육이 개방 예시 되어 있으며 난황 또한 예시 품목에 끼여 하루속히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증가해 나가는 닭고기가 수입산물에 의해 충당됨은 물론 자연기존 소비량까지도 값이 싸다는 장점으로 수입육이 점차 소비시장잠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생산비의 인하는 물론 사회적 변화에도 대응해 나가기 위해 시설 자동화도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성산농장의 새해 사업 구상이 었다. **양계**

